



곽정소 / 본회 이사  
한국전자(주) 사장

## 사고의 전환으로 미래를

1990년도 한 해는 전자산업에 몸담고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격동이요 변혁의 시대였다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우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국내적으로는 수출제 1위의 주력산업으로서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 5위의 전자공업국으로서의 막강한 위상을 구축해놓은 우리 전자산업인 들에게는 1990년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계속되어온 임금인상의 여파로 국제 가격경쟁의 우위요소는 상실되었으며, UR협상 이후 더욱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시장에서 조차도 수입되는 외국제품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산업여건의 급격한 변동속에서 우리 전자산업은 그 성장주세가 급속히 둔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례로 1990년의 1~4월 동안의 수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무려 12.5%나 감소하였으며 생산에 있어서는 '89년의 둔화주세와는 달리 수출의 급격한 침체에 영향을받아 전년동기대비 4.1%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을 경시하는 풍조와 함께 인

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상황으로 직시해 볼때 현재 우리 전자산업이 안고있는 어려움이 어느정도 인지는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산업이 이런상황으로 밖에 올수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전자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한 기업인의 생존과 발전은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기술혁신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편법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의 상실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민심을 도외시한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의 상품, 우리의 전통 보다는 외국의 그것들을 더욱 선호하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사대주의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루이스 교수는 한 국가의 1인당 GNP가 4천불정도 시기에는 국민들의 분배에 대한 욕구 분출과 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히 온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루이스 위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 위기를 잘 극복할 경우에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확실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결국에는 남미형의 경제로 후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때 현재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루이스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해전 까지만 해도 검소한 일벌레로 불리웠던 나라가 이제는 소비의 나라로 낙인 찍혔고,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따뜻한 인정과 애정 대신에 싸늘한 불신풀조가 자리 잡혀져 있으며 부조리 현상이 우리시대의 당연한 논리인듯 스스로에 묵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의탓이 아닌 바로 내탓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하며 철저한 사고의 전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안고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면 분명 내일의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